



2006 세계한민족과학기술자대회 결산

'한민족 고유의 글로벌 과학축전 - 세계 정보 교류의 장!'

한 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과총)가 주최하고 과학기술부, 교육인적자원부, 정보통신부, 산업자원부, 매일경제신문사, 한국경제신문사가 공동 후원한 '2006 세계한민족과학기술자대회'가 지난 7월 19일 오전 서울 코엑스 오디토리엄에서 성대하게 열렸다.

국내·외 과학기술자 1천여 명 참석

올해 창립 40주년을 맞은 과총 주최로 7월 19일부터 22일까지 3박 4일간 계속된 이번 대회는 세계 각국에서 활동중인 해외동포 과학기술자 300여 명을 비롯해 국내·외 과학기술자 1천여 명이 참석해 '미래로! 세계로!'란 주제로 한국의 미래 과학기술정책 대안

과 한민족 과학기술인들간의 긴밀한 교류 협력을 통한 네트워크 구축 방안 등을 논의했다.

특히 이번 대회에 참석한 해외 과학자 중에는 여성자궁경부암 백신 개발에 관한 핵심이론으로 널리 알려진 김신제 루이빌대 교수, 미국 벨연구소 김종훈 사장, 28세 나이로 미국 하버드대 교수에 임용된 함돈희 교수 등 한국이 낳은 과학기술 분야의 석학들이 대거 참석해 국내·외로부터 큰 주목을 받았다.

김우식 부총리 겸 과학기술부 장관은 격려사를 통해 "해외동포 과학기술자들은 세계 각국에서 한민족의 우수성과 창조성을 발휘해 조국의 과학기술 발전에 공헌해 왔다"며 "이는 또 다른 '한류'로



기조강연- 김종훈 미국 벨연구소 사장, 미나 테이처 이스라엘 과기부 차관



김신제 미국 루이빌대 교수



함돈희 미국 하버드대 교수



제너럴 세션 발표장



포스터 발표장

서 국내 연구원들이 해외 연구원들과 밀접하게 교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는 계기로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그 동안 정부는 해외 동포 과학기술자들과의 교류를 적극 추진해왔다"며 이번 세계한민족과학기술자대회를 통해 더욱 활발한 교류가 이루어지기를 당부했다.

채영복 과총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2006 세계한민족과학기술자대회 참석을 위해 조국을 찾아 준 해외동포 과학자들과 국내 과학기술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이번 대회를 통해 과학기술인들이 시대적 사명을 새롭게 인식하고, 현재와 미래의 역할에 대한 진지하고도 야심찬 논의를 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세계 연구개발 동향 · 한국과학기술정책 대안 등 논의

이번 대회는 플레너리 세션, 제너럴 세션, 과학기술 포스터 세션, 과총과학기술국제학술회의(KCIST) 등 4개 세션과 청년과학기술자포럼(YGF), 세계한민족과학기술자공동협의회 총회 등으로 나누어 진행됐다.

7월 19일 개막식에 이어 플레너리 세션에서는 미나 테이처 이스라엘 과학기술부 차관이 '이스라엘의 과학기술교육'을 주제로 이스라엘의 과학영재 교육 프로그램들을 소개해 큰 주목을 받았다.

이번 대회에 처음 신설된 제너럴 세션은 7개 부문에 걸쳐 100여 명의 토론자들이 참석했다. 참가자들은 과학기술과 거버넌스, 국가연구사업관리, 과학기술교육, 과학기술과 지역균형발전, 미래과

학기술, 과학기술과 여성, 과학기술의 세계화 등 다양한 의제를 논의하고 한국 과학기술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과학기술 포스터 세션에서는 IT, BT, NT, ET 등 첨단 과학기술 분야에 있어 국내·외 관계자 90여 명이 참석해 최근 세계 연구개발 동향 분석과 함께 한국이 나가야 할



만찬 발표 - 김성호 미국 버클리대 교수




YGF 발표장

방향을 모색했다.

과총과학기술국제학술회의(KCIST)는 20일부터 22일까지 전문분야별로 나누어 전국 각지에서 진행됐다. 이학 분야는 '가스하이 드레이트: '미래에너지와 지구환경'을 주제로 충남 안면도 오션캐슬에서, 공학 분야는 '유비쿼터스 IT'를 주제로 강원도 평창 보광 휘닉스파크에서 열렸다. 또한, 농수산 분야는 '영양 유전체학'을 주제로 전북 무주 티볼 호텔에서 진행됐으며, 보건 분야는 '혈관의 생명과학'을 주제로 충남 안면도 오션캐슬에 각각 열렸다.

10개국 재외동포 1.5~2세대 과학도 100여 명이 참가한 청년과학기술자포럼(YGF)에서는 '한민족 청년과학기술도 네트워크 구축 방안'에 대해 젊은 과학도들의 자유로운 토론이 진행됐으며, 다양한 강연과 판문점 및 휴전선 견학을 통해 한민족으로서의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다.

마지막 날 11개 재외과학기술자협회장이 참석하는 '세계한민족과학기술자공동협의회'에서는 한민족 과학기술인의 교류 협력을 통한 네트워크 구축방안이 논의됐으며, 각 재외 과학협별 현황 보고도 이뤄져 세계에 진출해 있는 우리 과학기술인들의 현주소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자리가 되었다.

1974년 처음 열린 세계한민족과학기술자대회는 올해로 16번째를 맞았으며 그 동안 전세계 한민족 과학기술인의 상호 유대를 강화하고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목표와 비전을 공유하는 행사로 자리 잡아 왔다. 

글·사진 | 편집실